

# 이광수 초기단편에 나타난 ‘동성애’ 고찰

이 성 희 \*

## I. 서 론

春園의 前期短篇은 日文으로 된 「愛か」와 年譜에만 나와 있지 확인할 수 없는 「放浪」을 제외하면, 1910년에 발표한 「無情」, 「어린 犠牲」, 「獻身者」 등 3편과, 1917년을 전후해서 발표한 「金鏡」(1915), 「少年의 悲哀」(1917), 「彷徨」(1918), 「尹光浩」(1918)의 5편을 합하여 도합 8편이 된다.<sup>1)</sup> 이광수의 소설에서 나타나는 동성애에 관한 논의는 초기단편의 경우로 집중되며, 그 대상작품으로 언급된 것은 「愛か」, 「尹光浩」, 「방황」, 「어린 벗에게」 등이다. 백철은 『신문학사조사』에서 춘원의 초기의 모든 단편소설들이 대개 그 題名에나 主題로나 人物로나 少年이 등장했다고 지적하면서, “「어린 벗에게」(1917년 1월), 「少年의 悲哀」(1917년), 「尹光浩」(1918) 등은 少年의인 同性 愛의 열렬한 애정(...) 주제가 되어있다.”<sup>2)</sup>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광수의 초기 단편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동성애는 당시 유학생 사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이광수의 동성애 경험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윤식은 이러한 이광수의 전기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혈서를 쓴 다든가, 철도 자살을 기도한다든가, 미소년을 사랑하는 행위는 당시 학생 사회의 유행적 풍조였다고 언급하면서, 춘원의 동급생 아마사키 도시오가 “나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1) 李來秀, 「李光洙의 短篇小說論」, 『이광수 연구(下)』, 태학사, 1984.

2) 백철, 『신문학사조사』, 신구문화사, 1999.

와 춘원이 함께 하급생 구마가야 나오마사라는 소년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라고 술회했다고 밝히고 있다.<sup>3)</sup> 「愛か」와 「尹光浩」는 작가 이광수의 실제 동성에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나온 소설이며, 「愛か」의 경우에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구마가야 나오마사’를, 「尹光浩」의 경우에는 이광수가 서당에서 한문수업을 할 때 ‘심태섭’이란 同學에 대한 동성애를 바탕으로 하여 쓴 소설이다.<sup>4)</sup>

이광수의 소설에서 나타나는 동성애에 관한 연구는 초기단편의 몇몇 작품에 한정되며, 크게 고아의식과 사랑기갈증으로 바라 본 연구, 자전적 소설의 관점에 접근한 연구, 사랑의 문제로 접근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김윤식은 이광수의 초기 소설의 주된 정서를 그리움으로 보고, 이 그리움이 남자, 여자 가릴 것이 없었으며, 이러한 미분화상태는 그가 고아였음에서 연유한다고 보았다. 고아였기에 ‘없음(不在)’에 대한 그리움이 형이상학적으로 그려졌으며, 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sup>5)</sup>

방민호는 자전적 소설의 관점에서 「사랑인가」와 「윤광호」를 분석하고 있는데, 동성애는 ‘기숙사’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대개 청교도적인 기독교 사상의 영향 아래 있던 조선 유학생들은 개인주의적인 삶을 버리고 위기에 봉착한 조국의 부흥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명목 아래 이성애를 억압하는 양상이 빚어졌다고 보았다. 「사랑인가」가 명치학원 중학 시대의 이광수의 내면 풍경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작품이라면, 「윤광호」는 명치학원을 졸업하고 귀국하여 오산학교 선생으로 일하면서 결혼까지 했다가 대륙을 방황한 끝에 김성수의 도움으로 2차 도일한 20대 초반의 이광수의 내면이 투영된 작품이며, 「사랑인가」에서 「윤광호」에 이르는 작품의 면면은 작가가 자기 체험을 소설화하려는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계몽주의적 이상에 의해 그러한 욕망이 제약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고 있다.<sup>6)</sup>

3)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1, 술, 1999, 253면.

4) 노종상, 『동아시아 민족주의와 근대소설』, 국학자료원, 2003.

5) 김윤식, 앞의 책, 219면.

6) 방민호, 「이광수의 자전적 문학에 나타난 작가의식 연구」, 『어문학논총』,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3, 114~116면.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노종상은 이광수의 초기 단편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서, 첫째 주인공들이 주로 작가 자신의 투영 내지 변형이라는 점, 둘째 소년이 주인공이라는 점, 셋째 연애문제를 다루었으며 특히 동성애를 많이 다루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sup>7)</sup>

서영채는 「尹光浩」와 「어린 벗에게」에서 발견되는 사랑을 ‘독백으로서의 사랑’이라는 개념 아래 포섭하면서 주체 중심적이고 관념적인 모습의 사랑, 자기표현의 수단일 뿐이며 대화가 아닌 독백으로서의 사랑이 이광수가 보여주는 사랑의 큰 특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sup>8)</sup>

손정수는 「尹光浩」를 분석하면서 동성애가 계몽의 기획과 현실적 상황 사이의 거리가 만들어 놓은 운명적 공동에 대한 깊은 고뇌가 동성애라는 현실적 수단을 선택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동성애는 이성애를 견디지 못한 초월적 감정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그와는 구분되는 차원, 곧 이성애로 분화되기 이전에 나타나는 성욕의 투여 방식으로서의 측면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문명사적 맥락에서 파악한다면, 봉건적인 결혼제도에 의해 배제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포섭하고 허용할 만한 현실적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대응된다고 밝히고 있다.<sup>9)</sup> 이상의 논의들에서 연구자들은 이광수의 초기 단편에서 동성애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성애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다 본격적인 의미에서 동성애의 의미를 밝히지는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광수의 초기단편에서 나타나는 동성애의 모티프가 사회, 문화적인 측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서양 문화에서 동성애라는 말은 1869년을 기점으로 하여 등장한다. 성별이 동일한 상대와의 사랑이나 성관계를 표현하는 단어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호모섹슈얼리티(homosexuality)는 1869년 벤커르트(Karl Benkert)라는 헝가리 의사가 고안하였다. 그런데 호모섹슈얼(homosexual)이라는 단어는 동성간의 인간관계를 성기 중심으로만 이해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근

7) 노종상, 앞의 책.

8) 서영채, 『사랑의 문법』, 민음사, 2004.

9) 손정수, 『미와 이데올로기』, 문학동네, 2002.

래에는 호모섹슈얼이라는 단어보다 게이(gay)라는 단어의 사용을 더 선호하고 있는데, 원래 게이라는 단어는 1940년대 초 동성애자들에 대한 억압이 심했던 미국 사회에서 동성애자들 간에 암호로 사용되기 시작 하였다. 호모섹슈얼은 성별이 동일한 상대와의 성행위만을 의미하는 반면에, 게이라는 단어는 그 성행동을 위시하여 자신의 사고 및 감정, 생활양식 그리고 자신을 동성애자로 여기는 생각이나 태도 등을 뜻한다. 여성 동성애자들은 게이라는 칭호를 용납하고 있지만, 레즈비언(lesbian)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한다. 레즈비언은 고대 그리스 에게해(the Aegean Sea)동부에 위치한 레스보스(Lesbos)라는 섬의 여인이라는 뜻인데, 그 섬의 수도였던 미틸렌(Mytilene)에 거주하던 여성들의 동성애에서 유래하였다. 여성들 간의 동성애는 레즈비언리즘(lesbianism)이나 사피즘(sapphism)으로 표현되며, 이들 모두 호모섹슈얼리티와 비교될 수 없는 고상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문학에서 동성애를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작가로 거론되는 사람은 토마스 만이다. 장성현은 토마스 만 연구자들이 만의 작품에 나타나는 동성애를 묘사할 때 “노출적 은폐”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며, 이는 특히 『마의 산』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만은 빌리팀페에 대한 자신의 동성애적 감정이 이 작품 속에서 표면상 이성애로 바뀌놓음으로써, 상징화했지만 동성애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감추기 위해 사용한 은폐수법들이 쉽게 포착될 수 있는 것이어서 연구자들은 노출적 은폐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sup>10)</sup> 동성애자인 작가는 기본적으로 성적 소수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며, 사회의 검열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텍스트 안에서 동성애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기 어렵다. 토마스 만의 경우도 연구자들의 시선에 포착되기는 하였지만, 작품 속에서는 동성애를 이성애로 바꾸어 놓는 방식으로 자신의 동성애적 경향을 은폐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광수의 문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동성애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이광수에게 있어서 동성애는 정신분석학적 관점이나, 사회학적 관점에서 파악되는 동성애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이광수에게 동성애의 경험이 있

10) 장성현, 『고통과 영광 사이에서』, 문학과 지성사, 2000, 109~110면.

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한 호기심이나 동경 정도였을 것이고, 일본에서의 동성애는 하나의 이유로 환원시킬 수 없는 복합적인 영향의 결과물이며, 이것은 논의를 전개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그 의미를 밝힐 것이다. 또 한 가지 이광수 문학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동성애의 특징은, 동성애를 은폐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동성애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식민지 조선에서 동성애에 관한 담론은 192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본격화되기 시작하는데, 1923년 11월에 『신여성』에 小春이라는 사람이 쓴 <요때의 조선신여자>라는 글에 유행어로서 동성애를 거론하고 있다.<sup>11)</sup> 이후로 1924년 12월에도 玄淚影이 『신여성』에 「女學生과 同性戀愛問題」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는데, 주목할 것은 그 부제가 ‘同性愛에서 異性愛로 進展할 때의 危險’이라는 점에 있다. 2년 후인 1926년에도 같은 잡지에 저자가 일기자라고만 기록되어 있는 글에서 동성애는 ‘이성애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안전하지만 경계해야 할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사실은 당시 동성애를 바라보는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글들은 모두 동성애가 성욕의 만족을 추구하지 않을 때까지는, 적어도 인정되지는 않았어도 용납되었음을 암시해 준다. 20년대 초반에 시작된 동성애에 관한 담론은 30년대로 넘어가면서 보다 본격화되는데, 『중앙일보』,<sup>12)</sup> 『중외일보』,<sup>13)</sup> 『동아일보』<sup>14)</sup> 등의 신문과 『별건곤』에는 동성애에 관한 기사와 글들이 실리고, 여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동성애가 표면으로 떠오르고, 사회적인 의미로 확장되어 가게 된다. 1920년대

11) 이것은 주로 여학생사이며, 여학생 중에도 기숙사에 드러 있는 학생 새에 있는 일이거나, 그들 사이에는 남자편으로치면 짝패라할만한 사람이란 것이다. ... 이것이 유행어로 하면, 니른바 동성애이라는 것이다. ... 동성애란 그것이 더러울 게 성욕의 만족을 얻으려하는 수단이되지 아니하는 이상에는, 이익이있을지언정 害(해)는 업슬관계이라고한다. 여자들 사이에는 동성애가 있음으로써, 정서의 애뜻한 발달을 재촉함이 되고, 따라서 남녀간의 풋사랑에 대한 유희를 면함이 될 것이다. 小春, 「요때의 조선신여자」, 『신여성』, 1923. 11.

12) <최근에 빈번한 동성애와 자살>, 『중앙일보』, 1931. 12. 30.

13) <성교육으로 보는 동성애의 폐해>, 『중외일보』, 1929. 11. 3.

14) <同性愛도 卍하여 飲毒自殺한 罪人>, 『동아일보』, 1930. 3. 29.

에서 30년대까지 동성애의 주체는, 여학생, 일본인 간호사, 죄수, 교수 등, 다양한 인물들이 신문지상에서 거론되었다. 동성애에 관한 기사가 빈번해지고, 가출을 하거나, 사제간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면서 동성애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 같다. 일제하의 신여성에 주목하면서, 신여성의 사랑에 관한 논의를 전개한 김경일<sup>15)</sup>은 이 논문에서 동성애가 이 시기 억눌린 성이 자신의 분출구를 찾아나가는 또 다른 방식 중의 하나였으며, 근대 사회에서 동성애는 성적으로 방어적 입장에 있었던 여성에 의해 우선적으로 채택되고 시행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남성들 사이의 동성애는 있다고 해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거나, 사회적인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여성의 동성애가 가진 의미를 파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김경일은 식민지에서의 동성애는 부정적이고 유해한 어떤 것으로 인식되어 늘 의심과 감시의 눈초리가 뒤따랐다고 언급하면서, 그 근거로 1932년 『동아일보』와 1939년 『조광』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sup>16)</sup>

조선에서의 동성애가 여성을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들 사이의 동성애가 사회적인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동의할 수 있지만,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것이, 20년대의 동성애는 우정의 성격을 띠는 동성애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랑으로서의 동성애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정의 성격을 띠는 동성애의 경우에는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용납되었으며, 오히려 20년대에는 ‘남녀 관계로 발전하지 않을 경우’라는 단서가 붙기는 하였지만, 해보다는 이익이 많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경일이 주목한 것은 ‘자살로 귀결되는 동성애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동성애는 본격적인 의미의 동성애라는 점에서 사회적인 억압과 여성이라는 특수한 위치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이광수의 초기단편에서 발견되는 동성애는 남성의 동성애이며, 그

15) 김경일, 「일제하의 신여성 연구—성과 사랑의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한국사회사학회, 2000.

16) 윤치왕 외, 「결혼과 임신 좌담회」, 『조광』 11월호.  
이석훈, <동성애 만담 1>, 『동아일보』, 1932. 3. 17.

시기도 조선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한 1920년대 이후가 아니라 1910년대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것은 이광수의 일본유학 경험과 관련이 있을 것이며, 이광수의 초기단편에서 나타나는 동성애 역시 우정으로서의 동성애와,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동성애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발생한다.

본고에서는 이광수의 초기단편에서 동성애가 천재성, 소년주인공과 혼인 제도, 본능과 사랑의 추구, 개성의 발견의 문제와 다양하게 얽혀 있다고 보고, 동성애의 의미를 밝히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간의 이광수의 소설에 관한 논의는 민족개조론과 관련된 계몽의 측면에 집중하거나, 종교적 측면에 주목하여 논의가 한 방향으로 편향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광수의 소설에서 사랑의 문제는 계몽의 문제만큼이나 중요하며, 한 개인의 내면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는 복합적인 산물임을 고려한다면, 계몽의 문제로 편향된 이광수의 문학을 다양성의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사실은 이광수 자신이 ‘톨스토이의주의와 바이런주의, 기독교적 사상과 악마주의 사상, 윤리학과 미학의 틈바구니에서 그 자신을 찾아야 했다’<sup>17)</sup> 개인사적인 문제와도 연결된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톨스토이 주의, 기독교 사상, 윤리학의 측면에서 조명되었던 이광수의 문학을 바이런주의, 악마주의 사상, 미학의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광수의 초기 단편에서는 순수 동성애와 함께 양성애<sup>18)</sup>가 함께 발견되는데, 양성애적으로 묘사된 경우에는 우정의 성격을 띠는 동성애인 경향이 많다.

17) 김윤식, 『문명 개화와 도쿄』, 앞의 책.

18) 동성애자들은 순수동성애자일 뿐 아니라, 양성애자인 경우도 많은데, 양성애라는 용어는 남녀 모두에게 동등하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남녀 누구에게든지 매력을 느끼고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영문으로는 바이섹슈얼리티(bisexuality)라고 하지만, 앰바이섹슈얼리티(ambisexuality)라는 용어가 더 적절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인과 소년간의 사회계급이 불평등하게 유지되던 초기 그리스, 고대 중국, 로마제국주의의 사회 및 고대 페르시아 등에서는 양성애가 유행하였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순수한 이성애나 순수한 동성애와 같은 범주를 오히려 부적절하게 여기었다. 윤가현, 『동성애의 심리학』, 학지사, 1998.

## II. 천재성과 문학적 감각의 발현으로서의 동성에

이광수는 자신의 최초의 일문소설 「愛か」를 써 놓고 상당히 고양된 태도를 보이는데, 이것은 이광수가 ‘천재’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학과 천재의 관련성에 관련해 논한 연구자로 김윤식을 들 수 있다. 김윤식은 남과 다르다는 것은 그가 천재임을 증명하는 일이었으며, 그가 천재임을 증명하는 방식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피고 있다. 하나는 학업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일이었으며, 두 번째로는 자기희생의 길이었고, 세 번째 방식은 문사가 되는 것, 작품을 쓰는 것, 그로써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sup>19)</sup>

「愛か」에서 형상화 되는 동성애는 자신이 천재임을 증명하는 방식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천재는 보통의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는 독특함을 가진 존재이며, 이 광수는 문학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천재성을 입증하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광수는 <천재야! 천재야!>라는 글을 쓴 적도 있는데, 이상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광수는 자신이 구별된 존재,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존재이고 싶어 했다. 「愛か」를 쓰고 난 이후에 이광수가 쓴 12월 21일의 일기를 참고하면 이광수가 자신의 문학적 감각을 인정받고 싶어 했음을 알 수 있다.

내 처녀작이라 할 만한 <사랑인가>가 『○○學報』에 났다. 깃브다. 꽤니 깃브다. 부질없는 깃브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지 않는 것이 불만했다. 아아 결점이다. 밤에 여러 사람들에게 (햄렛)이야기를 하였더니 다들 조와하는 모양이다. 나는 웬일인지 사람들에게 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sup>20)</sup>

위의 글에서 이광수는 ‘사람들이 칭찬해주지 않는 것이 불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자신의 처녀작이 학보에 실린 것에 대한 기쁨과, 그것을 칭찬받고 싶어 하는 이광수의 내면의 고백은 이광수가 당시 이 작품에 상당한

19) 김윤식, 앞의 책.

20) 춘원, 「18세소년이 동경에서 한 일기」, 『조선문단』, 1925. 4.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이광수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자신의 글에 대해서 알아주기를 원하는 작품인 「愛か」를 통해 이광수는 자신의 문학적 감각을 과시하고 싶었을 것이다. 따라서 「愛か」에서 발견되는 동성애는 ‘은폐’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시’의 수단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尹光浩」를 고찰할 경우, 이 소설의 마지막에 극적인 반전을 일으키는 ‘p는 남자러라’는 독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전복시키기 위한 소설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文군을 방문하였다. 그는 나와기슴을 서로 통하기를 청하였다. 나도 쾌히 허락하였다. 그는 나를 <파격의 남아>라고 일컬었다. 이대로 가면 만다시 세상을 놀래리라고, 한반도의 이름이 너 때문에 높아질 것이라고, 사람들은 다 너를 교만하다고하고 조치안타고 하지마는 그것은 당연한일이다. 거죽된자 아니고는 세상에서 환영받기 어려운 법이다. ... - 이렇게 말했다. 그는 만날적마다 나를 칭찬한다. 그러나 그것이 모도 진정인것갓다. 듯기에 실치 아니하였다. 기실은 나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은 했던 것이지마는 남이 그렇게 말하니 더욱 맘이 든든해지는 심인지 만족해지고 또 용기를 어뎠다.<sup>21)</sup>

위의 글에서 이광수는 자신이 ‘파격의 남아’라고 불리는 것을 상당히 만족스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광호」에서 文군은 이광수가 세상을 놀래킬 사람이며, 한반도의 이름이 너 때문에 높아질 것이라는 칭찬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칭찬에 대해 이광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파격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과는 구분되는 존재였다는 것을 암시하며, 이러한 구분을 이광수가 즐기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때, 이광수가 그의 문학에서 ‘동성애’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광수의 면모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愛か」를 집필 할 당시, 이광수가 다닌 학교는 청교도 학교였으며, 엄숙한 분위기에서 학교생활을 했다. 이러한 환경은 이광수에게 톨스토이적인 분위기의 평온함을 느끼게 했으며, 이러한 평온함과 청교도적 엄숙함은 자극적인 바이런주의에 이끌리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

21) 춘원, 앞의 글.

동성애는 이광수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주제로 다가왔을 것이며, 무엇보다 일본적인 美의 표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광수의 소설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동성애의 성격을 규정한다면, 사회적인 의미의 동성애라기보다는, 美적인 의미의 동성애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이광수의 동성애에는 노골적인 성의 묘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특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단은 美의식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는데, 美를 추구했던 이광수에게 동성애는 오히려 신비화되고,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형상화 되는 것이 더욱 적절했을 것이다. 이광수의 초기단편에서 사랑이 성취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은 이러한 사랑의 신비화와 함께, 美를 추구하는 경향과 맞닿아 있다.

춘원에는 상반되는 두 가지 욕구가 다투고 있는 것은 감출 수 없는 사실이다. ‘美를 동경하는 마음과 善을 좇으려는 바램이다.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욕구의 갈등! ...

그는 악마의 부하다. 그는 美의 동정자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의 본질적인 美에 대한 동경을 감추고 거기다가 善의 도금을 하려 한다.<sup>22)</sup>

위의 인용에서 김동인은 춘원이 얼마나 美에 집중하고 있었는지를 극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美에의 동경은 동성애와의 상관성에서도 드러난다. 동성애와 미의 상관성에 관해서 토마스 만의 경우를 참고해 볼 수 있는데, 토마스 만은 사회적 이유에서뿐 아니라 미학적 이유에서도 노골적인 동성애 묘사를 지양하였다. 1921년 2월 23일자 일기에서 토마스 만은 동성애를 직접적으로 그린, 노르웨이 작가 한스 헨리크 예거의 소설 『병든 사랑』을 “내게 예술적으로 아무것도 가르쳐주는 것이 없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불쾌한 기록”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만의 작품에서 동성애는 충족될 수 없는 ‘동경’으로 묘사되거나 은밀하고 상징적인 방식으로 암시될 뿐이다.<sup>23)</sup> 이러한 美의 탐구는 이광수 소설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특징인 동시에, 초기 단편에서는 제국 일본인의 육체와, 식민지 조선인의 육체와 관련성을 맺고

22) 김동인, 『한국근대소설고』, 591면.

23) 장성현, 앞의 책, 114면.

있다.

### III. 신비화되는 일본인의 신체와 美

「愛か」와 「尹光浩」는 이광수의 소설에서 본격적으로 동성애를 소재로 하여 다룬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의미에서 동성의 사랑을 다룬 「尹光浩」와 「愛か」에서 주인공은 그 결말을 자살로 끝맺게 된다. 이 두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은, 동성애를 이성애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 육체의 감각과 본능을 긍정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자살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이 두 소설에서 동성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성애를 바라보는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있다. 「愛か」에서 미사오와 「尹光浩」에서 p가 남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읽는다면 남녀의 연애관계라고 해도 될 만큼 자연스럽다. 이것은 이 소설에서 공간적인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일본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즉 이 두 소설에서 ‘동성애’는 일반적으로 동성애의 문화가 걸어온 길과 관련된 억압이나 금기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 1920년대 『동아일보』에서 발견되는 동성연애와 자살이 사회적인 억압 아래서 탈출구를 찾지 못한 성적 소수자들의 비참한 결말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sup>24)</sup> 「愛か」와 「尹光浩」에서 문길과 윤광호가 자살하는 이유는 사회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억압과 금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서 이 사랑의 비참함이 드러나는 것이다. 「愛か」와 「尹光浩」에서 문길과 윤광호는 자신이 남

24) <男女同性愛自殺>, 『동아일보』, 1926. 1. 22.; <同性愛로 出家 - 봄바람을 딸하>, 『동아일보』, 1929. 4. 10.

<同性愛로 情事>(『동아일보』, 1929. 11. 11.)의 기사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동성애자들이 자살했거나, 집을 나갔거나 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사랑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자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이 두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동성애가 일반적인 동성애와 다른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른 작품들에서 동성애 모티프가 이성애와 함께 나타나거나, 단순히 우정에 가까운 관계를 나타낸다면, 이 두 작품에서는 사랑으로서의 동성애가 발견되며, 육체의 감각과 아름다움을 강조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초기단편에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이광수가 ‘사랑’을 논할 때 정신적인 사랑을 강조한다는 사실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이 시기에 이광수에게 있어서 사랑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사랑으로 즉 계몽으로 덧입혀진 사랑으로 변화되기 이전의 사랑이며, 계몽 이전의 이광수의 사랑 개념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광수는 『조선문단』 창간호의 권두사에서 사람의 ‘동물성’을 변화시켜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sup>25)</sup> 즉 이 시기 이후부터는 이광수의 소설에서 본능으로서의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쨌거나 「尹光浩」와 「愛か」에서는 육체의 아름다움과 감각의 구체성을 긍정하는 장면들이 목격되는데, 주인공들이 사랑에 빠지는 장면에서 외모의 아름다움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작용한다.

금년 정월 그는 어떤 운동회에서 한 소년(少年)을 보았다. 그때 그 소년의 얼굴에는 사랑의 색깔이 넘쳐흐르고 눈에는 천사의 웃음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는 황홀하여 잠시 스스로를 잊었고, 그의 흥중에 타오르는 불꽃에 기쁨을 부었던 것이다. 소년이 곧 미사오이다.<sup>26)</sup>

이때에 光浩는 p라는 한 사람을 보았다. 光浩의 全情神은 不識不知間에 p에게로 옮았다. p의 얼굴과 그 위에 눈과 코와 눈썹과 p의 몸과 옷과 p의 語聲과 p의 걸음걸이와 ... 모든 p에 關한 것은 하나도 光浩의 熱烈한 사랑을 끌지 아니하는 바가 없었다.<sup>27)</sup>

25) 우리는 참된 종교와 참된 과학으로 더부러 참된 예술이 사람의 동물성(動物性)을 변하여 사랑의 ‘사람’으로 화하는 세 천사인 것을 믿는다. ... 예술은 몸에 눈보다 더한 제복을 입고 손에 하늘에 오르는 향로를 들고 그리고도 사람의 아들과 딸들의 싸늘한 령혼에 하늘 불을 부치는 엄숙하고도 정다운 녀신(女神)이라한다. 「권두사(卷頭辭)」 『조선문단』 1924. 10(창간호).

26) 이광수, 「사랑인가」, 김윤식 譯, 『문학사상』, 1981. 2.

사랑이 본능의 영역이며, 다른 요소가 아니라 아름다움에 이끌려 ‘황홀’의 지경에 이르러 스스로를 잊게 되는 것이나(「愛か」), p를 보자마자 온정신이 부지불식간에 사랑하는 대상에게로 옮는 것(「尹光浩」)은 모두, 사랑하는 대상의 인품이나 성격에 반한다기 보다는, 외모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광수의 장편소설에서 주인공이 사랑에 빠지는 방식과 매우 상이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애욕의 피안」에서 혜련이 강선생에게 사랑을 느끼는 것도 인격이나 성품 때문이며, 「사랑」에서 석순옥이 안박사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도 안박사의 외모 때문이 아니라 인품에 반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광수의 30년대 후반 장편들에서 부정하고 있는 사랑의 방식이 초기단편에서는 긍정되고 있으며,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되던 육체의 감각도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愛か」와 「尹光浩」에서 특징적인 것은 사랑의 대상이 되는 미사오와 P의 얼굴에 비해, 문길과 윤광호의 얼굴을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愛か」에서 ‘황홀’로 묘사되는 미사오의 얼굴에 비해, 문길의 얼굴은 ‘14살적에는 이미 어른다와져, 흥안이어야 할 그의 얼굴에서 친진난 만함의 모습은 퇴색해 버렸다.’라고 묘사되고 있다. 「尹光浩」에서는 얼굴에 대한 묘사가 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나타나는데, 광호는 자신의 얼굴이 못생긴 것에 비판하여,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 때에는 좀 싫증이 났던지 눈과 코를 되는 대로 만들어서 되는 대로 붙이고...’라면서 원망하고 있다. 윤광호에서는 다른 어떤 작품보다 외모에 주목하는 현상이 많이 발견되는데, p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윤광호는 화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고 휘 하고 한숨을 쉬면서 거울에 對하여 그 新聞에 썼던 것을 바르고 얼굴도 여러 가지 모양을 하여 보아 아무쪼록 얼굴이 어여빠 보이도록 하였다. 그 新聞에 쓴 것은 美顔水와 클립白粉인 줄은 光浩밖에 아는 사람이 없다.

얼굴에 ‘미안수’를 바른다거나, 클립백분을 바르는 것은 윤광호가 외모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암시하며, p의 사랑은 윤광호에게 그만큼 절

27) 이광수, 「尹光浩」, 『이광수전집』 8, 삼중당, 1971.

실한 것임을 암시해 준다. 그런데 「愛か」와 「尹光浩」에서 사랑의 대상, 동경의 대상이 되는 존재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제국의 일본인과 식민지 조선인의 대립구도는 사랑에 빠지는 방식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그 사랑에 빠지는 방식이 ‘육체’를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특징적이며, 또한 묘사되는 육체가 일본인의 육체는 ‘아름다움’의 표상 그 자체로, 황홀과 진정신의 집령으로 표현되고 있다.

즉 「愛か」와 「尹光浩」의 동성애는 단순히 사랑의 하위 개념으로서의 동성애의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매개로 해서 식민지 조선인의 동경이 ‘사랑’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랑이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기는 하지만, 「愛か」와 「尹光浩」에서 묘사되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육체가 매우 뚜렷하게 대비적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조선인이 일본인을 사랑하는 구도인 점, 그리고 그 대상이 이성이 아니라 동성이라는 점에서 이 두 작품에서 그려지고 있는 동성애는 제국과 식민지라는 특수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파악해야 할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愛か」와 「尹光浩」에서 사랑의 결말이 비극적으로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들이 긍정적인 이유는, 본능과 육체에 대한 미의 추구를 솔직하게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광수가 국내문단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동성애의 문제를 이 시기에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대담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은, 계몽과 본능 사이에서 갈등하던 이광수의 내면심리를 반영해주며, 오히려 이 시기에는 계몽보다 본능 쪽에 훨씬 더 비중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능을 옹호하면서 동시에 美를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일본인의 육체를 묘사하는 데서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진다. 이광수의 동성애는 프로이트가 말하는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sup>28)</sup>

28) 동성애를 바라보는 프로이트의 관점은 ‘유아다형성’론으로 압축되는데, 동성애는 이성이 나타나기 이전, 즉 미분화단계라고 보는 것이 그것이다. 만약 프로이트의 이론대로라면, 이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동성애는 사라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만 아니라, 이광수의 초기단편에서 동성애는 우정에 가까운 정신적인 사랑이었으므로 프로이트적인 시각으로 이광수의 동성애를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의 관련성 속에서 그 의미를 추적해야 할 것이다.

#### IV. 봉건적 결혼제도에 대한 거부와 양성애

이광수의 초기단편에서 동성애 모티프가 나타나는 소설은 「愛か」, 「少年의悲哀」, 「彷徨」, 「尹光浩」, 「어린 벗에게」이다. 이 중에서 「어린 벗에게」와 「少年의悲哀」는 1917년에 발표한 것으로, 조혼제도에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 두 작품에서 특징적인 것은 혼인제도가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억압하는가를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적이고 인위적인 것을 배척한다는 사실에 있다. 「少年의悲哀」는 同性愛보다는 近親愛가 더욱 핵심적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동성애적 모티프도 발견된다. 동성애 모티프가 발견되는 것은 문호와 문해의 관계에서이다.

文浩는 文海를 사랑하건만 文海는 文浩의 感情的인 것을 싫어하였다. ... 이렇게 從兄弟간에 年齒의 漸長함을 따라 性格의 差異가 生하면서 兩人間에는 如前히 따뜻한 愛情이 있었다. 毋論 文浩가 恒常 文海를 더 사랑하고 文海는 文浩에게 대하여 가끔 反感도 일으키건마는.<sup>29)</sup>

문호는 18세이며, 중등과정 학생인 청년이지만 그는 아직 청년이라고 부르기를 싫어하고 청년이라고 자칭한다. 문호는 난수가 결혼제도에 의해 희생당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지만, 양반의 체면을 내세우는 어른들에게 현실적으로 대항할 힘이 없다. 문호의 이러한 태도는 2년 후 유학을 다녀와 몇 년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아이와 문해의 아이를 보면서 ‘흥, 우리도 벌써 아버질세그러. 少年의 天國은 永遠히 지나갔네 그러.(65)’라는 탄식의 말을 통해 대변된다.

자유연애가 활성화되기 이전의 조선에서의 혼인은 사회적 재생산의 의무 즉 생식을 목적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할을 했다. 난수 역시 이러한 사회적 관습에 희생당한 개인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이 소설의

29) 이광수, 「少年의悲哀」, 『이광수전집』 8, 삼중당, 1971, 59면.

끝에서 少年의 天國은 永遠히 지나갔다는 문호의 탄식은 작가 이광수의 내면심리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의 소설에서 동성애와 사회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립하는 양상을 나타내거나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지만, 혼인제도에 대한 강한 부정과 동성애적 요소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사실은 주목해 볼만하다. 남자 동성애와 사회적 제도의 문제는 플라톤의 『법률』에서 언급된 바 있는데, 플라톤은 이 저작에서 동성애를 쾌락의 관점에서 비난하고 있다. 그가 비난하는 것은 남성 에로스가 아니라 무분별한 쾌락의 추구, 쾌락의 무절제, 바로 쾌락의 무상성이다. 『법률』에서의 문제는 사회단체의 단결을 강화하는 모든 것, 그 중에서도 특히 안정과 화합의 요소인 부부관계를 강화하고, 방탕과 무절제의 원천이라 할 육체적 희열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들을 가능한 한 축소하여 도시를 건설하자는 것이다.<sup>30)</sup>

말년의 플라톤의 저작에서 발견되는 동성애에 관한 시각은 동성애가 야기시킬 수 있는 무분별한 쾌락의 추구하고, 사회단체의 단결을 위협하는 것을 염려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시각은 푸코에게서도 확인되는데, 『쾌락의 이용』에서 미셸 푸코는 고대의 풍습에 관한 역사가들의 최근 작업들을 토대로, 그리스에서는 도덕적 경계선이 동성애와 이성애 사이에 그어졌던 게 아니라 절제할 줄 아느냐 방탕하느냐 사이에 그어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자제력의 결여’가 문제였던 것이다.<sup>31)</sup> 이광수의 소설에서 나타나는 동성애는 사회의 결함에 균열을 일으킬만한 동성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플라톤이나 미셸 푸코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광수의 초기단편에서도 이성애와 동성애사이의 도덕적 경계선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쾌락과 ‘조혼 제도’ 사이의 경계선이 더욱 문제되었다. 동성애를 도덕적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의 문학평론에서도 드러난다. 「소년에게」에서는 ‘道德的 破産’이라는 제목 하에 동성애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우리 어른들은 흔히 外國사람이 三年의 居喪을 아니한다 하여 또는 同性이 相婚한다하여 이것이 道德없는 證據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道德의 核心이라고

30) 도미니크 페르낭데즈, 『가니메데스 유괴』, 김병욱 譯, 수수꽃다리, 2004.

31) 위의 책.



합니다. 그러나 아직 나는 여기서 어떤 것이 우리의 지금 取할 道德이란 말은 아니하고 後章에 맡겼습니다.<sup>32)</sup>

이광수는 민족의 도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 어른들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에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 어른들은 ‘삼년 거상’이나 ‘동성의 상흔’을 도덕이 없는 증거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이광수는 기존의 전통적인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취할 도덕이란 말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소년에게」가 『개벽』에 발표된 시기가 1921년 11월에서 1922년 3월까지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1920년대부터 동성애의 문제는 조금씩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광수의 입장은 ‘도덕’의 잣대로 단정 지을 수만은 없다고 보았다. 이광수에게 동성애의 문제가 ‘도덕’과 관련된 성질의 것이 아니라면, 이광수의 동성애는 예술가의 감각과 관련된 미적인 동성애이며, 토마스 만의 구분처럼 사랑의 종류를 ‘동성애 Homoerotik’와 ‘결혼 Ehe’(즉 이성애)으로 이분화하고 이 두 개념을 서로 철저히 대조적인 것<sup>33)</sup>으로 보는 관점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동성애에 관한 묘시는 「어린 벗에게」에서는 「少年의悲哀」에서 보다 좀더 분명하게 동성애적 코드가 발견된다.

이때에 나는 더욱懇切히 그대를 생각하였나이다. 그때에 내가 病으로 있을 제 그대가 밤낮 내 머리맡에 앉아서 或 손으로 머리도 짚어 주고 多情한 말로 慰勞도 하여 주고 - 그 中에도 언제 내 病이 몹시 重하던 날 나는 二, 三時間 동안이나 精神을 잃었다가 겨우 깨어날 제 그대가 무릎위에 내 머리를 놓고 눈물을 흘리던 생각이 더懇切하게 나나이다. 그때에 내가 겨우 눈을 떠서 그대의 얼굴을 보며 내 여위고 찬 손으로 그대의 따뜻한 손을 잡을 제 내感謝

32) 이광수, 「少年에게」, 『이광수전집』 17, 삼중당, 1962, 224면.

33) 그리고 만은 이 두 개념을 각기 일련의 용어들과 동일시하거나 밀접하게 연관 짓는다. 즉 그는 ‘동성애’를 죽음, 유태주의, 미, 생식불능, 무책임, 무가망성, 비도덕성, 방탕, 집시근성, 변덕, 자유, 개인주의 등의 용어와 연관시켰고, 또 이들 여러 용어의 상호 관련성도 거듭 언급하였다. 반면에 ‘결혼(이성애)’을 그는 위에서 열거한 용어들과 대조를 이루는 일련의 용어들, 즉 삶, 정절, 지속, 번식, 책임, 도덕성, 의무, 봉사, 위업, 인간 공동체 등과 연관시켰다.

장성현, 『고통과 영광 사이에서』, 문학과 지성사, 2000.

하는 생각이야 얼마나 하였으리까. ... 내가 남을 사랑하는데서 오는 快樂과 남이 나를 사랑하여 주는 데서 오는 快樂을 아낌이로소이다. 나는 그대의 손을 잡기 爲하여 그대의多情한 말을 듣기 爲하여, 그대의香氣로운 입김을 맡기 위하여, 차디차고 쓰디쓴 人世의 曠野에 내 몸은 오직 그대를 안고 그대에게 안겼거니 하는 意識의 짜르르 하는 妙味를 맛보기 爲 하여 살고자 함이로소이다. 그대가 만일 平生 내 머리를 짚어 주고 내 손을 잡아 준다면 나는 즐거 一生을 病 으로 지내리이다.<sup>34)</sup>

이 소설에서 주인공은 병에 걸린 상황인데 그래서인지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 이 세상에서 아낄 것이 없지만, 주인공이 유일하게 아끼고 싶은 것은 ‘내가 남을 사랑하는데서 오는 快樂과 남이 나를 사랑하여 주는 데서 오는 快樂’이다. 주인공을 죽음에서 삶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사랑’이다. 주인공에게 살 의지를 부여하는 사람은 편지의 수신자인 ‘사랑하는 벗’이며, 주인공은 ‘손을 잡기 위하여’, ‘그대를 안고 그대에게 안겼거니’ 하는 묘미를 맛보기 위해 살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소설은 「少年의 悲哀」보다 동성애에 대한 묘사가 좀더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性的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보기는 어렵다. 이 소설에서 이성애와 동성애는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이광수가 동성애를 이성애의 대척점에 놓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이성애와 동성애는 모두 봉건적 제도의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봉건적 결혼제도에 의해 억압당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이광수 소설에서 동성애와 이성애가 모두 발견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동성애보다 이성애가 더욱 억압되었던 것처럼 보인다. 「어린 벗에게」와 「少年의 悲哀」에서 나타나는 동성애는 이성애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조혼제도’라는 강력한 적이 있었기에, 동성애와 이성애는 같은 노선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소설에서 발견되는 동성애를, 서양문화 혹은 서양문학에서 꽃피운 동성애와 동일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소설에서 동성애 모티프와 함께 주목해서 살펴볼 것은 ‘본능’에의 옹호이다. 사랑을 본능의 영역이라고

34) 이광수, 「어린 벗에게」 『이광수전집』 8, 삼중당, 1971, 66면.

말하면서, 혼인을 편리상 사회적으로 제정한 규약으로 정의하고, 이것을 인위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男女關係도 肉交를 하여야 비로소 滿足을 얻음은 野人의 일이고, 그 容貌 舉止와 心情的 優美를 嘆賞하며 그를 精神的으로 사랑하기를 無上한 滿足으로 알기는 文明한 修養많은 君子라야 能히 할 것이로소이다. 아름다운 女子를 사랑한다하면 곧 野습을 想像하고, 아름다운 소년을 사랑한다 하면 곧 醜行을 想像하는 이는 精神生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卑賤한 人格者라 할 것이로소이다. ... 남녀가 서로 肉體美와 精神美에 홀리어 서로 全心力을 傾注하여 사랑함이 人類에 特有한 男女關係니 이는 무슨 方便으로 卽 婚姻이라는 形式을 이룬다든가, 生殖이라는 目的을 達한다든가, 肉慾의 滿足을 구하려는 目的의 方便으로 함이 아니요, <사랑> 그 물건이 人生의 目的이니 마치 나고 자라고 죽음이 사람의 피치 못할 天命과 같이 男女의 사랑도 避치 못할 또는 獨立한 天命인가 하나이다. 婚姻의 形式 같은 것은 社會의 便宜上 制定한 한 規模에 지나지 못한 것—즉 人爲의 이어니와 사랑은 造物이 稟賦한 天性이라 人爲는 거스릴지언정 天意야 어찌 禁違하오리이까. ... 그러므로 吾人은 決코 이 本能—사랑의 本能을 抑制 하지 아니할뿐더러 이를 自然한(卽 正堂한)方面으로 啓發시켜 人生의 完全한 發見을 期할 것이로소이다.

위의 글에서는 肉交와 정신적인 사랑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정신적인 사랑을 설명함에 있어서 예를 드는 것이 ‘아름다운 여자’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소년’을 사랑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즉 이광수가 이 소설을 창작할 당시에 아름다운 소년을 사랑하는 것이 아주 이질적이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1년 뒤에 발표되는 「윤광호」에서도 동성애가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보다 쉽게 이해된다. 이광수의 동성애에서 실제적인 성관계가 나타나지 않으며, 정신적인 사랑을 추구하거나, 육체적인 사랑을 갈망했어도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동성애 즉 아름다운 소년을 사랑하는 행위는 아무런 사회적인 해악이 되지 않았다. 즉 서양 문화 속에서 플라톤이나, 푸코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동성애가 사회라는 공동체를 위협할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었다는 뜻이다.

위의 인용에서 주인공은 남녀의 사랑을 天命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혼인의 형식과 사랑을 대립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혼인의 형식은 사회의 편의

를 위한 규모이며, 인위적인 것인데 반해, 사랑은 조물주가 부여한 천성이며, 본능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본능’을 억제하지 않고, 계발시킬 것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사랑은 욕욕의 만족이나, 생식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혼인이라는 형식을 이루는 것이 아니며, 사랑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사랑은 본능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이를 자연한 방법으로 계발시키는 것을 ‘인생의 완전한 발견’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위/본능, 혼인/사랑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고 본능을 옹호하는 이광수에게서 동성애가 발견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동성애는 사회적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사랑이며, 인위라기보다는 본능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少年의 悲哀』와 『어린 벗에게』에서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인위적인 것을 배척하고, 본능으로서의 사랑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인위적인 것을 배척하기는 하지만, 결혼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婚姻에 對한 管見』에서 혼인의 목적, 혼인의 조건, 혼인상으로 본 여자 교육 문제, 정조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혼인’에 관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시켜 나가고 있으며, 『婚姻論』에서도 역시 ‘혼인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 중 하나’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sup>35)</sup> 혼인제도 자체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조혼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유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선에서 이성애는 동성애만큼이나 억압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위의 소설에서 양성애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이처럼 이광수의 초기 단편에서 나타나는 동성애는 제도와 본능, 인위와 자연의 대립구도 속에서 파악이 가능하며, 관념적인 사랑과 구체적인 사랑에 대한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몽 이전의 사랑에 대한 이광수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본능에의 옹호는 계몽에 가려 있던 이광수의 내면을 균형 있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5) 이광수, 『이광수전집』 17, 삼중당, 1962.

## V. 결 론

식민지 조선에서 ‘동성애’에 관한 담론은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는데, 20년대까지 동성애는 비교적 용납되는 듯하다. 그러나 20년대 이후, 육체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보다 성적인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동성애가 빈번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30년대부터는 동성애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나타난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동성애는 이광수의 초기단편에서 나타나는 동성애로, 조선에서 본격적으로 담론화 되기 이전의 동성애에 관한 것이며, 이미 1910년대에 동성애를 소재로 하여 글을 썼다는 점에서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민족개조론으로 대표되는 계몽의 문학으로서의 이광수의 문학이, 본능과 유희주의, 육체성의 옹호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은 이후 이광수 문학과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할 때, 매우 중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광수의 초기단편에서 나타나는 동성애는 남자동성애로 한정되며, 이 동성애는 본격적으로 사랑의 관계로 나타나는 동성애와 우정의 관계로 나타나는 동성애로 양분된다. 어떤 방식으로 형상화되고 있건 간에, 1910년대 후반까지 이광수의 소설에서 묘사되는 동성애는 사회적인 억압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동성애였으며, 이광수의 개인의 내면의 갈등이 동성애를 매개로 하여 발현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이광수는 그의 문학평론인 「소년에게」에서 동성애의 문제를 도덕적인 잣대로 단정 지어서 볼 수만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의 시각은 「어린 벗에게」에서 동성애를 이성애와 크게 다르지 않게 보고 있다는 사실에서 더욱 확실해진다.

동성애에 대한 이러한 거부감의 결여는 일본 유학경험이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그의 소설에서 동성애는 일차적으로 그의 천재성, 문학적 감각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또한 사랑으로서의 동성애의 가능성을 내보이는 「愛か」와 「尹光浩」에서는 식민지 조선의 청년이 일본인의 신체를 동경하는 시선이 동성애를 통해서 발현된다. 이 두 작품에서는 육체의 美를

공정하는 방식으로 동성애가 형상화되고 있다. 「少年의 悲哀와 「어린 벗에게」에서 발견되는 동성애 역시 사랑으로서의 동성애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의 초기단편에서 동성애는 ‘조혼제도’라는 거대한 적을 앞에 두고 이성애와 양립해서 형상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도덕적인 잣대로 구분되는 이성애의 반대편에 있는 동성애가 아니었기에, 이광수의 소설에서 양성애가 나타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광수의 동성애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성적 소수자들의 동성애라기보다는 예술적이고 미적인 동성애라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며, 일본유학체험이라는 사실과 만나서 독자적인 의미를 확보하고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이광수, 『이광수전집』 1~11, 삼중당, 1971.

### 2. 신문 및 잡지

<男女同性愛自殺>, 『동아일보』, 1926. 1. 22.

<同性愛로出家 - 봄바람을 딸하>, 『동아일보』, 1929. 4. 10.

<同性愛로情事>, 『동아일보』, 1929. 11. 11.

<同性愛도 끈히어 飲毒自殺한 罪人>, 『동아일보』, 1930. 3. 29.

<성교육으로 보는 동성애의 폐해>, 『중외일보』, 1929. 11. 3.

### 3. 단행본

장성현, 『고통과 영광 사이에서』, 문학과 지성사, 2000.

윤가현, 『동성애의 심리학』, 학지사, 1998.

이광수, 김윤식 譯, 「사랑인가」, 『문학사상』, 1981. 2.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1, 숲, 1999.

노종상, 『동아시아 민족주의와 근대소설』, 국학자료원, 2003.

동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학연구소 편, 『이광수 연구 (下)』, 태학사, 1984.

방민호, 「이광수의 자전적 문학에 나타난 작가의식 연구」, 『어문학논총』,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3.

백철, 『신문학사조사』, 신구문화사, 1999.

서영채, 『사랑의 문법』, 민음사, 2004.

손정수, 『미와 이데올로기』, 문학동네, 2002.

도미니크 페르낭데즈, 『가니메데스 유괴』, 김병욱 譯, 수수꽃다리, 2004.